

· 1965년 『문학산』과 1968년 『인천사진문화사』 발간

1965년 1월 9일 열린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 이사회에서 사협 인천지부를 경기도지부로 승격시키면서 인천지부는 경기도지부로 변경되었다.

1965년 제14회 국전에서 이종화의 <호박제(祭)>(칼라)가 입선했다(사진17).



사진17 1965년 제14회 국전에 출품했던 사진으로 추정되는 <호박제(祭)>

1965년 말 이종화는 최초의 저서 『문학산(文鶴山)』을 출간했다. 10년간 촬영했던 문학산과 그 주변 일대의 사진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수록했다. 책의 출판기념회는 이보다 조금 늦은 1966년 3월 4일(토) 저녁 6시 반 인천공보관에서 가졌다.

3월 4일(토) 저녁 6시 반 인천공보관에서 이종화가 지은 향토사 자료지 『문학산(文鶴山)』의 출판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었다. 10년간 촬영한 사진(칼라) 중에서 역사적인 자료만을 선택해서 수집한 집성이다. 일제때도 해방후도 이 인천역사의 발상지(發祥地)에 대한 사진은 없었다. 거기에 미군기지를 축조하느라고 전부 파괴되었으므로 이 사진은 더욱 중요했다. 이 책자의 발행인인 윤갑로 시장은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간곡한 축사가 있었다.

- 『인천사진문화사』, 83~85페이지 -

향토사의 자료 『문학산(文鶴山)』 출간(出刊)

인천시의 개업의사인 이종화씨는 또한 생활의 여가를 즐기는 「아마추어」 사진예술가이다. 그는 특히 인천의 향토사를 부각시키는 사적유물과 사라져가는 옛 풍경을 찍어두는 일에 열중했다. 취미학문을 곁들이는 그의 『카메라』활동은 먼옛날부터 인천의 진산(鎭山)인 문학산(일면 학산, 남산, 속칭 = 배곶산)을 중심으로 약 10년의 시간을 쌓았다고. 오늘날 그는 인천시사(仁川市史) 연구가로 「클로즈업」되었고, 그가 조사 수집한 기록과 『필름』에 수록한 향토사자료에는 다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문학산(文鶴山)”이라는 향토사자료의 말쑥한 도판책자를 발행하였는데 이속에는 이미 찾아볼길 없게된 문학산일대의 고적 및 전설의 바위의 사진들과 함께 인천에 남은 여러 유적·유물들이 약 40점, 사진중심으로 엮여지고 있다. 그들 사진제공자가 앞의 이종화씨이다. 윤갑로 시장은 책자의 서문(序文)에서 이런 말을하고 있다.

“문학산은 이미 서기(西紀) 이전(BC18) 향토 인천의 지명을 우리역사에 기록했다. 이처럼 유서 깊은 고적을 비록 국방상 불가피하였다지마는 2천년의 이끼가 낀 갖가지 유물과 산성, 그리고 봉화대까지를 삼시(霎時)에 잃었다는 것은 참으로 서운하기 그지없다.”

수년전 문학산은 군사기지가 되면서 옛모습을 잃어버렸다. 지난날의 기록사진도 산실과 변질의 운명. 그래서 『문학산(文鶴山)』 책자를 출판케 되었다는 얘기.

- 『경향신문』, 1966. 2. 7.(전문) -

이종화의 『문학산(文鶴山)』은 당시 인천의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다행하게도 1938년에 세브란스의전(醫專)을 졸업한 이종화 선생이 해방 후 인천에서 개업을 하게 되었다. 의사이면서 유능한 사진작가였던 그는 갑작스러운 변모로 모든 사적(史蹟)을 잃어가고 있는 문학산(文鶴山)을 애석하게 생각했던 나머지 사진작품집 『문학산(文鶴山)』이라는 명저를 남겼다. 문학산이 군사보안지구가 되어 일반의 왕래가 곤란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기록 사진을 수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선생의 대단한 노력과 집념의 소산이라고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인천태생도 아닌 그가 인천(仁川)의 주산(主山)인 문학산에 쏟은 애정은 참으로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65년에 간행된 『문학산(文鶴山)』은 얼마 안되는 인천향토사자로 중에서 빛나는 존재로 꼽히고 있다.

배꼽산 이야기를 하다보니 문학산에 배꼽이 있었다는 증명사진을 제공한 저자의 숨은 공적을 기리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고(故) 이종화 선생과 함께 하루빨리 통일이 성취되어 평화로운 강산을 되찾아 옛적에 배꼽산에 오르듯 문학산 등산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신태범의 『인천 한 세기』 중 〈배꼽산〉, 60페이지 -

1966년의 이종화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같은 해 제17회 싱가포르국제싸롱전에 이종화의 칼라 사진작품 〈가을〉과 〈조조〉 2점이 입선하여 인천 사진작가로서는 해외당선의 효시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6월 30일 한국 최초로 『한국사진연감』을 출판했는데, 이종화의 칼라사진인 〈호박제(祭)〉가 선출 게재되었다. 또한 7월 이종화의 작품 〈원죄근처(原罪近處)〉가 제15회 덴마크 국제전에서 입상했다(사진18). 제15회 국전에서는 〈탈출〉이 입선했고, 2월 25일 예총회랑에서 개최된 전국회원동인전에서는 작품작 〈WINK〉가 인천 최초로 십결상(十傑賞)을 수상했다.



사진18 입선작 〈원죄근처(原罪近處)〉
(『조선일보』, 1966. 9. 18.)

1967년 1월 7일부터 이종화는 『인천신문』 4면에 카메라 에세이를 매주 1회씩 연재했다. 집필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2월 26일부터 열린 『경기일보(京畿日報)』의 지상(紙上) 사진전에는 67년도 사협 회원들의 대표작품들을 매일 연재하고, 해설을 담당했다.

집필동기는 문인들과 가끔 시사(詩寫)전같은 것을 해보면 사진과 시가 잘 융합되지 못하고 같은지면 위에서 동상이몽으로 꿈꾸고 있었던데 불만하여 자기사진에다가 자기글을 직접 접목시켜 글과 사진이 서로 유관되지 않도록 시도해본 것이었다. 이 「카메라에세이」(사진수필)은 1주 1회씩 60회선까지 계속 되었었다.

- 『인천사진문화사』, 91페이지 -

같은 해, 8월 20일 개최한 제11회 임해촬영대회의 인천 측 심사위원을 맡았던 이종화는 입상작 중 6점을 골라 『경기일보』 지상을 통해 심사평을 썼다.

9월 27일 대구사단의 노장급 사진작가 구왕삼(具王三, 1906 ~ 1977)이 방문해 이종화에게 자기가 뜻하는 시사전의 후원을 요청했다. 이종화는 그를 맞아 은영다방을 전시장으로 소개하고 또 지부원들을 소개했다. 당시 작품작은 약 30점으로, 한국 저명시인의 작품과 함께 전시했다. 제14대 인천시장 김해두(金解斗, 재임기간 : 1966. 9 ~ 1969. 5)을 비롯한 각계인사들의 내관이 있어 일주일간 성황을 이루었다.

이종화는 국제사진전에도 사진작품을 출품하여 7월에 열린 캐나다 오타와 국제사진전에서 〈그녀는 영어를 모른다〉가 입선되었고, 9월의 파키스탄국제사진싸롱전에서는 〈전력〉이 입상했다.

1967년 12월 14일부터 예총 경기도지부에서는 미술 · 사진작품을 중심으로 경기도 내 소도시에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 평택(平澤)을 시작으로 도내 미술 순회전시를 개최했고, 이종화는 〈비명〉을 제공했다.

1968년 2월 11일 제7차 한국사협정기총회에서 임원개선 결과, 인천출신 본부이사로 이종화가 선출되었다. 그날 회의실(예총회랑)에서 개최한 전국회원전에서는 참가자 투표 결과로 이종화의 〈고독(孤獨)의 장〉이 입상했다.

3월 동우회(東友會)가 주최한 제2회 한국국제싸롱전에서 이종화의 〈안간힘〉이 입선되었다. 해외전시 중 하나인 포르투갈 국제사진싸롱전에서는 이종화의 〈불경(不敬)〉과 〈납량(納涼)〉 등 3점이 입선되었다.¹⁸⁾ 또한 4월 14일 제6회 자유중국 국제사진전에서도 이종화의 〈황엽(黃葉)〉(칼라)가 입선했다.

이 해 이종화는 처음으로 중앙무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4월 13일 (문화)공보부 위임장을 받고 제7회 신인예술상사진부 심사위원을 맡게 된 것이다. 이종화는 심사 후 도내당선자들의 작품평을 일일이 『경기일보』 지면에 실었다. 또한 5월 15일 제2회 전국아마추어촬영대회 응모사진 심사위원으로도 선임되었다.

18) 본문에 ‘3점’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사진 제목은 2개만 나와 있어 오기(吳起)로 보인다.

1968년 5월경 후지(富士)칼라 전국전(全國展)에 이종화는 <소녀의 꿈>을 출품했다(사진19).



사진19 1968년 『카메라藝術』 10월호에 게재된 사진으로, <소녀의 꿈>과 유사한 구도의 사진이다.

1968년 12월 이종화는 저서 『인천사진문화사(仁川寫眞文化史)』를 출간했다(사진20, 21). 머리말에 따르면 출판에 앞서 7월 15일부터 기고(起稿)를 시작했으며, 이 원고는 『경기연합일보(京畿聯合日報)』 지상에 발표하였고, 또다시 정리해서 『인천시사(仁川市史)』에 편입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이종화는 위 저서에 스스로 ‘비록 한 지방의 사진사에 불과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정사(寫眞正史)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하마터면 황무지로 끝날뻔했던 사진 인천의 옛 기록을 체계화하고 문헌화한 것이 중요했다.’는 자평을 남겼다.

도서의 제자(題字)는 장인식, 편집은 시인 조한길, 화보편집은 정태진(鄭泰鎭)이 맡았다. 책의 소개문은 1969년 발행 『카메라藝術』 3월호에 수록되었다.



사진20 도서 『인천사진문화사』



사진21 『인천사진문화사』 수록 내용 중 『문학산(文鶴山)』 소개 부분

『인천사진문화사』 후기

삼복중(三伏中)에 묵은 신문을 뒤져주느라고 수고해주신 김춘식(金春植)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문헌이 완전(完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무에서 하나의 유를 형성시켜 보았다는것만으로 자위(自慰)를 느끼며 후일 다시씨질 빛나는 사진사(寫眞史)에 이바지해본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 문헌이 재정비 되는대로 다시 인천시사편찬위원회에 그 일부를 보낼 것이다. 흐트러져 있던 이야기를 모아놓고 보니 마치 불뿔이 헤어져있던 옛 식구(食口)들이 한방안에 모인 것 같다.

사람이 사람끼리 모여서 옛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이다지도 즐거운 것일까? 더구나 같은 길을 걸어온 동지(同志)들의 구성진 회화(會話) 소리는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 귀에까지도 번져나가는 것 같다. 그들에게 힘이되고 빛이될 회화 소리만을 들려 주어야겠는데 그것이 노상 쉬운노릇만은 아닌 양싶다.

1968년 10월 25일

인천사진문화사(仁川寫眞文化史)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 7월 15일, 그러니까 한창더웁던 삼복중(三伏中)이었는데 붓을 놓기는 9월 16일 가을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다.

하루 두세시간밖에 자지못해가며 각처에서 모아온 사료(史料)를 정리하다보니 가을이 되었고 또 그것을 다시 편집해서 화보와 기사를 인쇄(印刷)하고 제목까지 하다보니 겨울이 왔다. 이 작업은 마치 광야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힘이들었다. 무에서 유를 찾아내기란 이다지도 어려운것인지를 미처 몰랐다.

빈약한 인천(仁川)사단이었지만 이야기는 많았다. 구름같은 이야기 모래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일일이 정리해서 고증(考證)을 세우느라고 한여름동안 진담을 뿜았다. 집필에있어서 정확한데 이타를 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노릇이었다. 더욱이 해방 이전의 일은 그때 인물들이 지금도 새파랗게 생존해있지만 증거를 대지 못했다. 천행(天幸)으로 정도선(鄭道善) 선생이 제공해준 일제때 신문이 유일한 보증수표였다. 하마트면 해방전 역사는 아담이 될번하였다. 해방후 초기 은영회(2대까지)의 것은 주로 문총회보와 김철세(金哲世)씨 개인 스크래프북에 의거(依據)했고 제4대 은영회(허합(許滄)시대)의 것은 김인수(金仁守)씨가 제공해준 은영회일지(銀影會日誌)가 유일한 힘이었다. 귀중한 문헌을 잘 보관해준 김인수씨에게 감사한다. 은영회와 사우회가 통합된 후의 문서는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묵은 신문과 『사진문화』지에서 겨우 추려냈다.

이 밖에도 이종화는 『(月刊)京畿』 1월호에 사진 · 글을 연재한 것을 필두로 사진전문지 『카메라藝術』에 「포토엿세이」를 8월호부터 연재했다. 9월 3일부터는 『신아일보(新亞日報)』에 「카메라 엿세이」라는 제목 하에 사진 수필을 게재했다. 『(月刊)京畿』 및 『카메라藝術』에 수록된 이종화의 집필 목록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표2, 3).¹⁹⁾

표2 『(月刊)京畿』 게재 목록

연번	제 목	연도	호수	비고
1	직장과 보건(保健)문제	1967	12월호	칼럼
2	설화(雪花)	1968	1월호(창간)	사진·글
3	3월의 서정(抒情)	1968	3월호	사진·글
4	수향(水鄉)	1968	6월호	사진·글
5	동화(童話)	1968	8월호	사진·글
6	메밀꽃 계절	1968	9월호	사진·글
7	을유(乙酉)의 문은 열리고, 모정은 강하다	1969	1월호	사진·글
8	진달래	1969	4월호	사진 제공
9	생활속의 향토미(鄉土美) -재(再)음미 되어야할 우리의 풍미(風味)-	1969	5월호	칼럼
11	FAPA 총회와 그 주변에서 얻은 이야기들 신(新)일본의 촉감(触感)(上)	1970	11월호	칼럼
12	FAPA 총회와 그 주변에서 얻은 이야기들 신(新)일본의 촉감(触感)(下)	1970	12월호	칼럼
13	일미(一味)의 감칠맛	1971	8월호	칼럼

표3 『카메라藝術』 게재 목록

연번	제목	연도	호수	비고
1	호박제(祭)	1968	1·2월호	사진 소개
2	수향(水鄉)	1968	8월호	사진·글
3	해당화	1968	9월호	사진·글
4	버릇, 동화(童話)	1968	10월	사진 수록
5	하얀포도	1968	11월	사진·글
6	사진인업체순례	1968	12월	이종화 소개
7	묘기	1969	1·2월호	사진·글
8	이종화 저 『인천사진문화사』	1969	3월호	저서 소개
9	조춘(早春)	1969	4월호	사진·글
10	기공식	1969	7월호	사진·글
11	유정(有情)	1969	8월호	사진·글
12	오손 도손	1969	11월호	사진·글

19) (月刊)京畿 및 『카메라藝術』은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자료이다.

1968년도에 제2차 FAPA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인천사진문화사』에 따르면 FAPA는 아세아사진예술 단체 연합회(FEDERATION OF ASIAN PHOTOGRAPHICART)의 약칭이다. 1966년 11월 25일에 자유중국 대북(대만 타이페이)시에서 아세아지역 10개국(자유중국, 일본, 비올빈(필리핀), 홍콩, 월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의 사진예술단체 대표자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단체로 아시아 지역 우방국가간의 사진예술 문화 교류와 국제친선을 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1968년도 제2차 대회는 10월 19일부터 5일간 한국 사진협회주최로 문공부(문화공보부) · 예총이 공동으로 후원했다. FAPA 집행위원의 부서 중 경기사협에서는 총무부에 이종화, 집행부(섭외부내)에 김용화가 참가했다. 10월 19일부터 예총화랑에서 개최된 FAPA 친선 회원전에 이종화는 인천 사진작가로 <어린GI>를 출품했다. 차기 FAPA 회의는 1970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는데, 후에 이종화가 대표로 파견되었다.

· 1969년 ~ 1974년

1969년 이후 이종화의 활동은 『인천예술50년사』를 참고하였다. 이 책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부의 활동과 당시 개최한 사진전시회, 날짜, 참여 작가 및 작품명을 요약 수록한 자료들이 실려 있어 이를 바탕으로 1974년 사망까지의 이종화의 활동을 정리했다.

1969년도에 이종화는 제8대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부 지부장이 되었다. 1962년 초대 지부장이 된 이후 두 번째였다.

2월 1일에 주최한 제7차 한국사진문화상 시상식에서(장소 : 서울 예총화랑) 이종화는 전년도(68년) 발간저서 『인천사진문화사』로 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사진22). 이 수상은 경기도 최초였으며, 전국적으로는 두 번째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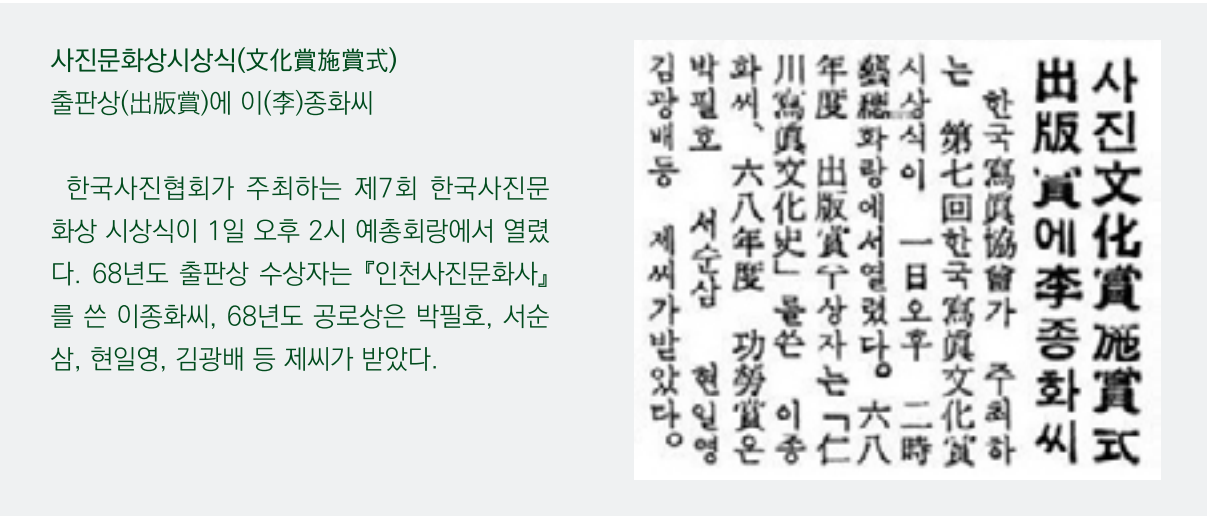


사진22 출판상 수상 기사(『동아일보』, 1969. 2. 1.)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인천사회복사(仁川社會福祉) 장학위원회 주관으로 인천 은성다방에서 미술전람회가 열렸다. 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부의 회원들도 참여했는데 이종화는 <속삭임>을 출품했다.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사협 경기도지부의 주최로 제26회 사진동인전이 인천 은성다방에서 개최되었다. 이종화는 <수향> · <뜰>을 출품했다.

8월 17일 인천 팔미도에서 제13회 전국임해사진촬영대회가 열렸다. 이종화는 심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은 글을 발표했다고 한다. 『인천예술50년사』에 실린 글을 옮긴다.

심사(審査)를 마치고

이종화(李 宗 和) 사협(寫協) 경기도지부장

날씨관계로 또는 선박 관계로 여러해를 두고 계속 불행하기만 했던 사협(寫協) 경기도지부 주최 전국 임해촬영대회는 금년 제13회에 과거의 악조건이 해소되어 명실 공히 역사적 성황을 이루었다. 거기에 모델도 우수했고 수에 있어서도 예년보다 2명이나 더 참가했었다. 그 결과 응모작품 건수도 3백점을 넘었다. 그러나 심사한 결과, 작품수준이 불행했던 그 때보다 탁월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예술작품이란 어쩌면 불행한 환경 속에서 더 빛을 낼 수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입선권내 작품들이 비교적 좋았고 또 인화처리면에 있어서도 공드린 흔적이 엿보였으나 막상막하한 작품 수준이어서 42점을 가려내느라고 심사위원은 애를 먹었다.

그러나 입상작품은 구분해 내기에 애쓰는데 비하면 쉽게 선정했던 편이다.

자칫하면 천편일률적인 작품이 나오기 마련인 촬영대회 사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참신한 화면구성을 하여 면밀한 인화처리를 한데 주안점을 두었었다.

다섯명의 심사위원은 입상 작품의 등급을 가려내느라고 장시간(長時間)의 토론(討論)을 계속(繼續)했다. 특히 칼라 작품의 선정(選定)에 있어서 더욱 그러했다. 칼라 심사(審査)에서 색조(色調)가 좋아야 한다는 것은 그 선행조건(先行條件)이기는 하겠지만 기타 작품적인 조건도 흑백의 경우와 꼭 같이 구비돼야 하고 또 흑백 사진과 대결할 수 있는 조건이 서야 한다.

너무나 치열한 경합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조사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모를 정도다.

끝으로 말해두거니와 대부분의 경우 당락의 차이는 백지 한장 정도의 것이었다는 것과 작품이 좋았어도 동일형의 작품이 많았을 때는 불가불손해를 보아야 하는 것이 『컨테스트』의 결점이라고 하겠다.

- 『인천예술50년사』, 1423 ~ 1424페이지 -

1969년 10월 9일 《세종문화큰잔치》의 일환으로 인천 송도(松島)에서 사협경기도지부 주관으로 제8회 경기도내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 사진촬영대회가 열렸다. 심사는 사협 사무실에서 진행했으며 이종화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세종문화큰잔치》의 부대행사로 연합미전(綜合美展)이 열렸다. 1969년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예충 경기도지부 주최로 문협(文協), 미협(美協), 사협(寫協), 건협(建協) 주관의 연합 작품전이 인천시 공보관에서 개최되었다. 이종화는 <초춘(早春)>, <공수거(空手去)>를 출품했다.

제2회 김광일(金光一) 개인 사진전이 1969년 10월 8일 ~ 15일까지 인천 은성다방에서 열렸다. 이종화는 <성등(聖燈)>을 찬조작품으로 출품했다.

1970년을 앞두고 이종화는 잡지 『경기에충』 제8호에 보고논문을 게재했다고 한다. 『인천예술50년사』에 실린 보고논문 일부를 싣는다.

1970년대를 향한 사협(寫協) 도지부(道支部)의 회고(回顧)와 전망(展望)

이 종 화(李 宗 和)

한 마디로 말해서 69년도 사협(寫協) 경기도지부(京畿道支部)의 아이디어는 행사 위주의 실적(實績)을 탈피시켜 작품본위(作品本位)의 전환기(轉換期)를 마련함으로써 새로 비약(飛躍)할 70년도의 도약태(台)를 마련하는데 있었다. 그리하여 3월 공모전(公募展)같은 전국규모의 콘테스트를 폐지시키고 매월 월례회를 강화시키는 한편 적어도 월2·3회 정도의 회원 공동촬영회 같은 것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노라면 월례회 작품 정도는 무난히 얻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 타공모전(他公募展)에 출품 할만한 우수작의 출현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 돈독해질 수 있으리라는 1석 2조의 야망(野望)도 없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권장하고 구체화시켜 회원들의 사기를 고무(鼓舞)시켜 보려는 첫 수단(手段)으로 마련해 본 것이 바로 「연도상(年度賞)」 제도였다. 종전에는 월례회 때마다 수작(秀作)을 추려 소상(小賞)을 시상(施賞)하던 것을 더 거대(據大)시켜 그 해 연말에 가서 월례작품 최고득점자(最高得點者)와 수작(秀作) 연도별(年度別)의 2명(名)을 가려내어 전자(前者)에게는 「월례작품 최우수 연도상(月例作品 最優秀 年度賞)」을 후자(後者)는 「월례작품 우수 연도상(月例作品 秀作 年度賞)」을 주기로 했다.

행사면(行事面)에 있어서는 전통(傳統)이 뚜렷이 서 있는 전국(全國) 임해촬영(臨海撮影) 대회와 후배(後輩) 육성(育成)에 목적(目的)을 둔 도내남녀중고등학생(道內男女中高等學生) 촬영대회(撮影大會) 이외(以外)에는 일절(一切) 고려(考慮)에 넣지 않기로 했다.

그리한 성과(成果)도 없지 않아 2월 월례회 때는 전례(全例)에 없는 30여점(餘點)의 작품(作品)이 나왔다. 때마침 본부(本部)로부터 내방중(來訪中)이던 정도선 부이사장(副理事長)에게 작품(作品) 심사(審査)를 의뢰(依賴)했었다.

우리 인천사단(仁川寫壇)의 숙망(宿望)인 「전국적 두각(全國的 頭角)」을 노현(露現)시킬 때가 목전(目前)에 다가온 듯 하였다. 그러나 회원(會員) 공동(共同) 촬영대회(撮影大會)는 점점(漸漸) 그 열(熱)이 식어가 불과(不過) 2·3회 정도로 중단(中繼)되고 말았다. 몹시 유감(遺憾)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으나 1년간의 실적을 종합해 보면 그리 비관할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적지 않은 수확(收穫)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국적(全國的)인 어느 공모전(公募展)도 우리 회원(會員)의 작품(作品)이 비록 양적(量的)으로는 적었을망정 한 두 점(點)이상 끼어있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69년도(年度)의 지부회원(支部會員)들의 작품활동(作品活動)은 활동(活動)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간(間)의 격차(隔着)가 심했다. 눈부신 활동(活動)을 한 사람은 그 만큼의 셋방(勢方)의 대가(代價)를 받았고 전연(全然) 움직이지 않은 회원(會員)은 그런대로 공백상태(空白狀態)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많이 노력한 회원(會員)들의 작품(作品)을 가지고 지부(支部) 실적을 메꾸게 되었던 것이다.

(중략)

▲ ‘벤·포트클럽’과 ‘렌즈클럽’

전자(前者)는 9월 15일(九月 一五日)에 인천(仁川) 「호전」다방(茶房)에서 후자(後者)는 10월 28일(十月 二十八日) 소사(素砂) 「이화」다방(茶房)에서 창립전(創立展)을 가졌다.

인천(仁川)에는 엄연(嚴然)히 사협이 존재(存在)한데도 불구하고(不拘)하고 또 작으나마 사진 단체(團體)를 만들면 트러블의 원인(原因)이 되기 쉽고 또 지부(支部) 회원인 정영근(丁榮根)씨가 회장이요 김용수(金容洙)·정중화(鄭中和) 양 회원이 그곳 회원으로 있었을 뿐더러 사전(事前)에 사협 지부장(支部長)에게 연락(連絡)이 없었기 때문에 지부회원(支部會員)들에게 오해(誤解)까지 사게 되었으니 밴포트 회원들은 회원자격(會員資格)을 얻기 위(爲)한 성장도상(成長途上) 단체(團體)로서 자격(資格)을 얻는 대로 사협에 가담(加擔)할 회원단체(團體)라는 회장의 설명(說明)으로 지부(支部)에서는 이해(理解)하기로 했다. 단(但) 한가지 자중(自重)했어야 할 점은 성장도상(成長途上)의 단체(團體)로서는 좀 지나친 PR을 했었다.

「렌즈클럽」은 소사(素砂) 읍내(邑內)에 거주(居住)하는 사진애호인들로서 구성(構成)된 역시 성장도상(成長途上)의 단체(團體)이다. 경기사협(京繼寫協)과는 친근(親近)해져서 이종화(李宗和), 김광일(金光一), 김용수(金容洙)씨 등(等)이 그곳 월례(月例) 심사위원(審査委員)으로 초빙받은 바도 있다.

결론(結論)

위에 열거(列舉)한바와 같이 69년도(六九年度)는 작품(作品) 활동(活動)이 왕성(旺盛)했고 그 양상(樣相)이 광범위(廣範圍)하여 널리 분포되었다고 보아진다. 거기에 회원전(會員展)과 개인전(個人展, 3회)이 활발(活廢)했었고 정례적(定例的)인 행사(行事)도 비교적(比較的) 호황(好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록 많지는 않다 하지만 지부(支部)에 기금(基金)이 마련되었다.

다만 회원들의 경제적(經濟的) 상태(狀態)가 더 윤택(潤澤)해지지 못해 활동면(活動面)에 적지 않은 제약(制約)을 받게 된 점은 안타까운 노릇이나 작품활동에 대한 의욕(意慾)만은 중천(中)에 있으니 불행중(不幸中) 다행(多幸)이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사소한 일로 회원간의 반목(反目) 같은 것이 생기지 않기를 원(願)하는 바이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고어(古語)와 같이 회원 상호(相互)가 화목(和睦)해지면 70년대(七十年代)의 경기사단(京繼寫壇)은 웅비(雄飛)할 수 있을 것을 확신(確信)해 마지않는다.

- 『인천예술50년사』, 1428 ~ 1433 페이지 -

1970년 4월 7일 ~ 12일까지 가사원(家事院)과 본 지부와 공동주최로 부녀사진강좌(婦女寫眞講座)를 개최하였다. 강사로 사협 본부이사였던 이종화가 참석했다.

같은해 8월 이종화는 한국사진작가협회를 대표하여 「사진예총(寫眞藝總)의 방향성(方向性)을 모색해본다」는 제목의 글을 가지고 일본 도쿄(東京)에서 개최된 제3차 FAPA(아시아 사진예총단체연합) 총회에 참석했다. 일본 도쿄 방문 후기를 같은해 발간한 『(月刊)京畿』 1970년 11월 · 12월호에 「FAPA 총회와 그 주변에서 얻은 이야기들 - 신(新) 일본의 촉감(觸感) -」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나누어 기고했다. 이종화의 참석 사실은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사진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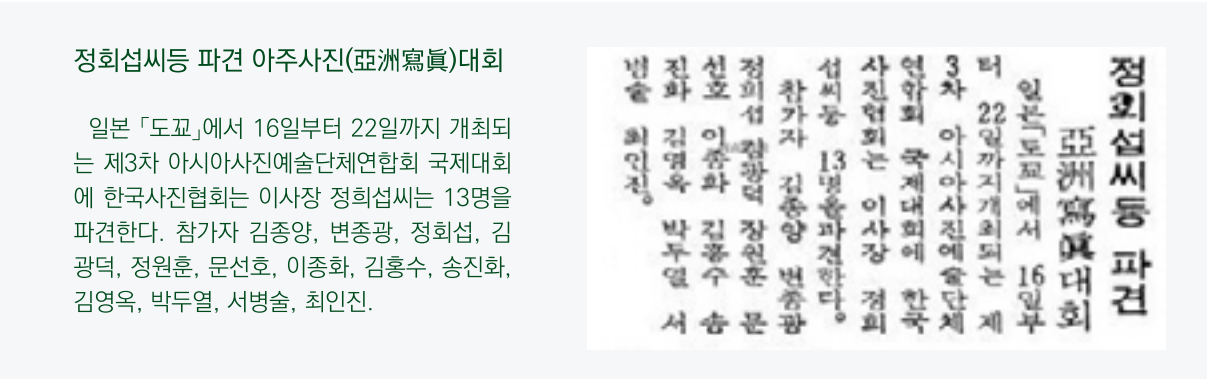


사진23 아주사진(亞洲寫眞)대회 파견 관련 기사
(『경향신문』, 1970. 8. 18.)

1970년 9월 12일 ~ 16일까지 제14회 전국임해촬영대회 사진출품전을 인천시 공보관에서 개최하였다. 이종화는 사진지도를 맡았다.

1970년 12월 5일 ~ 11일까지 인천 은성다방에서 제28회 사협 경기도지부 회원작품전이 열렸다. 이종화는 <NUDE>, <어상(魚商)>을 출품했다.

1971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사협 경기도지부의 주최로 개최된 제15회 전국임해사진촬영대회 작품 전시회가 인천시 공보관 화랑에서 열렸다. 이종화는 사진 심사위원을 맡았다.

1971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사협 경기도지부 주최로 제10회 전국 중 · 고등학교 학생 사진촬영대회에서 선정된 사진작품이 인천시 공보관 화랑에서 개최되었다. 이종화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1971년 12월 12일 부터 17일까지 사협 경기도지부의 주최로 제30회 사협 경기도지부 회원 작품전이 인천 은성다방에서 개최되었다. 이종화는 <우화(羽化)>, <신미인도(新美人圖)>, <영상(映像)>(칼라)를 출품했다.

1972년 6월 1일부터 7일까지 은성다방에서 제31회 사협 경기도지부 회원 작품전 개최되었다. 이종화는 <탄력(彈力)>(칼라)를 출품했다.

1972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천 은성다방에서 제32회 사협 경기도지부 회원 작품전이 개최되었다. 이종화는 <나비처럼>, <이색지대(異色地帶)>(칼라)를 출품했다.

1972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소사 백도다방에서 김수열(金洙烈) 부부 사진작품전이 열렸다. 이종화는 초대작가로 참여하여 <미인도>를 출품했다.

1973년 이종화는 제12대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부 지부장이 되었다.

1973년 1월 25일부터 2월 중순경까지 인천 오성다방에서 최병구시서화전(崔炳九詩書畵展)이 열렸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이종화는 사진을 출품한 것으로 확인된다(사진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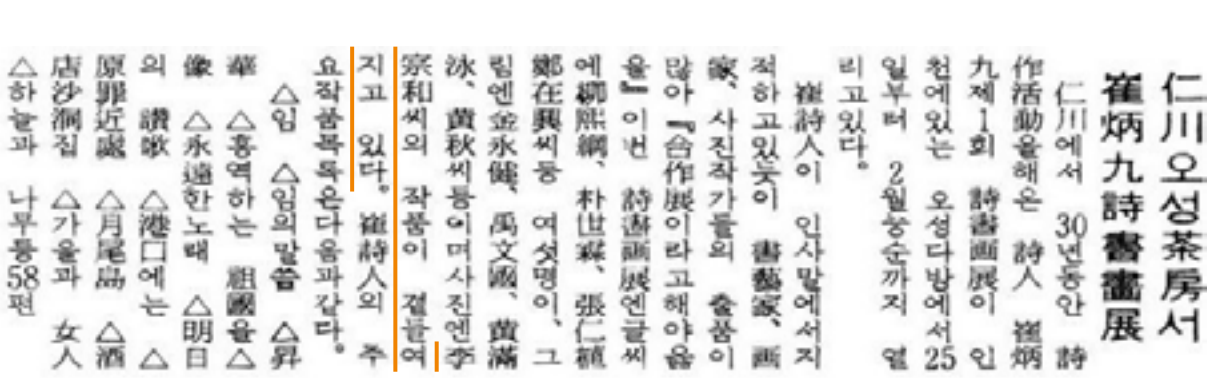


사진24 최병구시서화전 기사(『매일경제』, 1973. 1. 31.)

1973년 이종화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제12대 경기도지부 지부장이 되었다. 1973년 6월 1일부터 6일까지 인천공보관에서 제9회 새마을 경기미전(京繼美展) 사진전시회가 열렸다. 제9회 대회부터는 대회명앞에 '새마을'이라는 관형사가 붙었다. 이종화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1973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인천 은성다방에서 제33회 사협 경기도지부 회원 작품전이 열렸다. 이종화는 <어느 오후(午後)>, <등교(登校)>를 출품했다.

1973년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사협 경기도지부 주최로 제17회 전국임해사진촬영대회에서 선정된 사진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대회는 8월 16일 인천 앞바다 작약도에서 진행했으며, 이종화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1973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소사 대도다방에서 사협 부천지부 창립 <영상의 적(影像의 跡)> 사진전이 열렸다. 이종화는 <도(道)>를 출품했다.

197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은성다방에서 제34회 사협 경기도지부 회원 작품전이 열렸다. 이종화는 <꽃 본 듯이>(칼라), <머리핀>을 출품했다.

제12회 동아사진(東亞寫眞) 콘테스트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이종화는 1974년 6월 23일 갑작스러운 뇌일혈로 사망했다.

원로 사진작가 이종화 별세

1974년 6월 23일 인천사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온 원로 사진작가 이종화씨가 뇌일혈로 급서했다. 3일장에 6월 25일 사협 경기도지부장으로 인천(仁川) 공보관(公報館) 앞에서 많은 조객(吊客)이 모인 가운데 영결식이 엄수되었다.

경기사협(京繼寫協) 1974년 보고문

홍재린, 사협 경기도지부장(洪在麟, 寫協 京繼支部長)

(중략)

이렇듯 바람직하고 기쁜 일이 있었던 반면(反面)에 본(本) 지부(支部)는 한국사단(韓國寫壇)의 원로(元老)인 이종화(李宗和) 회원을 잃어 더할나위 없는 슬픔을 겪었다. 6월 23일에 별세(別世)한 이종화(李宗和) 회원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건강(健康)한 모습으로 6월 24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촬영대회의 지도를 맡기 위해 카메라 손질까지 했었는데 한밤중에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기독교병원(基督病源)에 입원(入院)했으나 치료(治療)의 보람도 없이 타계(他界)한 것이다. 이 비보(悲報)를 접한 전(全) 회원들은 한결같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3일장에 투신(投身), 6월 25일의 영결식을 인천공보관(仁川公報館) 앞에서 한국사진협회(韓國寫眞協會) 경기도지부장(京繼道支部葬)으로 엄수(嚴修)한 후 백석동 소재 카톨릭 묘지(基地)에 안장했다.

- 『인천예술50년사』, 1465~1466페이지 -



III

슬라이드 필름으로 보는 《문학산(文鶴山)》

1. 이종화의 슬라이드 작품전
 2. 제4회 이종화 슬라이드 작품 영사회
 - 2-1. 영사회 구성과 개요
 - 2-2. 지면으로 보는 작품 영사회 《문학산(文鶴山)》
- [부록] 고일 선생의 1963년 슬라이드 영사회 감상기
- [부록] 《문학산(文鶴山)》 슬라이드 필름 복원

III

슬라이드 필름으로 보는 《문학산(文鶴山)》

1. 이종화의 슬라이드 작품전

이종화 선생은 1965년 『문학산(文鶴山)』을 발간하기까지 적어도 다섯 차례 이상의 슬라이드 영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생이 개최한 각 영사회 관련 내용은 『인천사진문화사』를 토대로 정리했다.

첫 번째 영사회는 ‘제一회李宗和칼라슬라이드展’이라는 이름으로 1958년 9월 23일 오후 7시 30분 경동락희다방에서 은영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180점의 슬라이드 필름을 환등기로 영사했고 이때 해설은 이종화가 직접 맡았다. 90여 명이 참석한 인천 최초의 천연색 슬라이드전이었고 개인 사진전으로는 김철세 이후 두 번째였다.

두 번째 영사회는 1959년 1월 16일 밤 ‘제二회李宗和天然色슬라이드展’으로 이름이 조금 바뀌었다. 역시 은영회가 주최하였으며 향도다방에서 열렸다. 제6·7대 인천시장 김정렬(재임기간 : 1954. 2. ~ 1960. 6.)을 비롯한 인천의 문화단체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2회 때부터 음악을 수록하기 시작했고 편집도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세 번째 영사회 ‘第三會李宗和天然色슬라이드展’은 1960년 2월 6일 밤 7시에 은성다방에서 개최했다. 인천시장과 시의원, 문화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180장의 슬라이드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개최했으며 2부에서 이종화 작품을 영사했는데 <금수강산>과 <寫眞만화>라는 제목 하에 150여 점을 영사했다고 한다.¹⁾

이종화 선생은 슬라이드 영사회를 개최할 때마다 다양한 연출을 시도했다. 녹음기에 음악을 수록하여 화면과 맞추거나, 별도의 해설 없이 음악만을 넣어 슬라이드를 감상하게 하거나, 사계절의 자연미를 카메라에 담은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이런 시도들을 반영한 결과물이 바로 1962년 제4회 문학산 슬라이드 영사회이다.

네 번째 영사회 ‘第四會李淙和天然色슬라이드展’은 1962년 9월 중순, 인천시립박물관에서 개최했다. 문화계의 여러 인사들을 초청하고 10년간 촬영한 <문학산>의 슬라이드 200점으로 영사회를 가졌다. 3회 때와 마

1) 당시 인천시립도서관장 장인식(張仁植)은 은영회 주최 제1 · 2회 슬라이드 영사회에 참석했다. 인천시립도서관 주요 일지에 1958년 10월 13일 사진작가 이종화씨의 원색 사진 작품 환등(幻燈) 감상회 참석을 위해 락희다방에 갔다는 기록, 이듬해 1959년 1월 16일 향도다방에서 개최한 은영회원 원색사진 작품 환등 감상회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다. (인천시립도서관, 『館誌』, 1961, p. 142, 144.) 다만 제1회 영사회 참관 기록이 1958년 10월 13일(『관지』), 1958년 9월 13일(『인천사진문화사』)로 차이를 보인다. 인천광역시, 『인천역사문화총서 제93호 미추홀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2021, pp. 259~263.

찬가지로 해설 및 음악과 인천 시인들의 작품을 녹음하였으며, 이 전사회는 10월 10일 《세종문화큰잔치》에서도 행사 중 하나로 개최되었다. 이처럼 이종화의 문학산 슬라이드 영사회에는 당시 활발히 활동하던 인천의 문화예술계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사진문화사』에는 제4회 영사회까지의 기록만 있다. 그러나 영사회에 초대받아 참석한 후기를 남긴 고일 선생의 신문 기고문을 통해 1963년 6월 20일 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제5회 영사회 당시의 정황을 엿볼 수 있다.²⁾

2. 제4회 이종화 슬라이드 작품 영사회

2-1. 영사회 구성과 개요

올해 상반기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인수한 이종화 선생의 자료 <제4회 슬라이드 영사회>는 슬라이드 필름 199점과 당시 영사회를 녹음한 약 40분 분량의 릴테이프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사진문화사』에는 200점을 상영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1장은 유실된 것으로 생각된다.

슬라이드 필름을 스캔한 결과 영사회 제목, 참여자의 이름과 당시 맡았던 역할, 소재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진행순서에 따라 넣은 사진 · 삽화를 비롯해 사진과 잘 어울리도록 이종화 본인을 포함한 시인들의 작시(作詩)가 삽입되어 있었다.

슬라이드 구성은 시작부분에 영사회 제목과 참여자들의 이름을 표기했다. 제목은 ‘第四會 李淙和 슬라이드 作品 映寫會’이며, 그 다음 장에 ‘文鶴山’이라는 부제를 달았다.³⁾ 이후 3장에 걸쳐 참여자들의 역할이 소개되어 있다. 구상 · 편집 · 음악은 이종화(李宗和), 녹음은 김진걸(金鎭傑), 미술에 유희강(柳熙綱) · 장인식(張仁植) · 우문국(禹文國) · 조평휘(趙平彙) · 김인환(金仁煥), 해설(내레이션)은 한상억(韓相億)이 맡았다.

영사회는 문학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역사적 사실, 전설, 유적, 설화, 자연풍경 등을 소개했다. 진행 순서에 따라 ‘인천지명변천고’와 ‘사모지고개(三呼峴)’, ‘文鶴山の 바위’, ‘文鶴山에 피는 꽃’, ‘文鶴山에서 본 구름’, ‘文鶴山の 四時’ 등의 소재목을 삽입했다.

사모지 고개 등 인천의 역사와 관련된 고적(古蹟)을 소개할 때, 전해지는 설화를 바탕으로 그린 채색 삽화를 수록하였다. 문학산의 바위, 꽃 등의 자연풍경을 소개할 때 이종화, 한상억, 낭승만, 조한길의 시를 넣었다. 문학산의 사계절(四季節)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별도의 설명 없이 음악만을 틀어 사진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는데, 영사회 중간중간 삽입된 음악은 이종화 선생이 직접 선곡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고일 선생은 1963년 6월 20일에 열린 5회째 영사회에 비회원으로 초대되어 6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문학산]시리즈에 감동했음을 피력하였다.(<인천의 문학산은 살아있다-이종화씨 심혈의 결정체 슬라이드 작품을 보고->), 『인천신문』, 1963. 6. 22.)

3) 이종화의 한자 표기인 李宗和를 李淙和라 한 점이 특이한데 아드님에 의하면 본래 이름은 '李淙和'였으며, 후에 '李宗和'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슬라이드 필름에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문학산 고인돌을 소개할 때 시립박물관에 소장된 문학산 출토 돌칼 등을 삽화로 그려 넣었고, 비류왕릉을 설명할 때 두 남성에게 갑옷을 입혀 비류와 온조 형제로 분장시키거나, 삼호현 고개 설화를 나타내기 위해 고개 위에서 전별 나온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을 스케치로 그린 것과 이를 채색한 그림을 넣은 것들이다.

영사회 소제목, 삽화들을 스케치북에 따로 제작하여 사진으로 찍은 듯 스케치북의 스프링 자국이 필름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서예가와 화가, 시인 등으로 구성된 문화계 인사들이 영사회에 참여한 흔적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특이한 점은 문학산을 중심으로 낙랑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이천여 년간의 의상변천과정을 수록한 점이다.

다음 내용은 제4회 이중화 슬라이드필름 영사회를 녹음한 약 40분 분량의 릴테이프 음성(내레이션)을 바탕으로 슬라이드 영사회를 지면에 재구성한 것이다. 영사회 내용 순서에 따라 총 5개 파트로 구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소제목을 새로 단 부분도 있는데 이 경우는 별도로 표기했다. 슬라이드 필름은 전체 199장이지만, 변색이 심하거나 곰팡이로 오염된 사진들은 제외하고 수록했다. 당시 영사회를 위해 참여한 사람들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⁴⁾

유희강(劍如 柳熙綱, 1911 ~ 1976)

호는 검여(劍如), 1911년 인천 시천동에서 태어났다. 1937년 명륜전문학교(明倫專門學校)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1938~1939년 북경 동방문화학회에서 중국 회화 및 금석학을 공부하고, 1943년에는 상해 미술연구소에서 서양화를 공부하였다. 광복 후 귀국하여 인천 미술계에서 활동하면서 제11대 인천시립도서관장(1954. 4. 13. ~ 1954. 6. 13.), 제2대 인천시립박물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1968년 뇌출혈로 우반신이 마비되어 왼손으로 서예를 시작했다. 검여체(劍如體)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저서로는 『향토 인천의 연구』, 『검여 유희강 서예집』이 있다.

장인식(又樵 張仁植, 1928 ~ 1993)

호는 우초(又樵), 1928년 인천 송현동에서 태어났다. 1942 ~ 1945년 인천상업전수학교(현 동산중고등학교)에 재학하였고 1957~1958 연세대학교 부설 한국도서관학교를 수료했다. 제3대 · 5대 · 9대 인천시립박물관장 및 제12대 인천시립도서관장(재임기간 : 1954. 6. 14. ~ 1967. 12. 31.)등을 역임했다. 1976 ~ 1984년까지 국전 초대 작가로 활동했고 1978년에는 국전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배길기(時庵 裴吉基, 1917 ~ 1999)에게 사사했으며, 한글 궁서체와 전서(篆書) · 예서(隸書)에 능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문국(古如 禹文國, 1917~1998)

호는 고여(古如), 1917년 황해도 해주 청룡면에서 태어났다. 1939 ~ 1942년까지 상해 미술전과학교 서양화과에 재학했다. 1950년 인천 미국 공보원 미술과장을 지냈으며, 1955년 초대 인천문화원장, 제6대 인천시립박물관장 등을 역임했다. 1992년 『인천예술50년사』 집필위원으로 활동했다.

조평휘(雲山 趙平彙, 1932 ~ 현재)⁵⁾

호는 운산(雲山), 1932년 황해도 연안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을 피해 서울에 정착한 후, 서울대학교 중등교원양성소를 졸업하고 잠시 교편을 잡다가 홍익대학교 동양학과에 입학했다. 재학 당시 청전(靑田) 이상범과 운보(雲甫) 김기창에게 동양화를 사사했다. 1958년 제7회 국전에 입선하여 화단(畫壇)에 등단했다. 2001~2005년 운보미술관 관장, 1976년부터 목원대학교 미술대학의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1994 ~ 1995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다. 목원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5) 2023년 8월, 대전에 거주 중이신 조평휘 선생님께 이중화 선생과의 일화에 대해 여쭙어보았다. 구순이 넘으셔서 기억이 많이 희미해졌지만 이중화 선생에게 크게 신세 진 일 하나는 기억나신다며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다. 아내가 첫아들을 낳고 병원에 있다 퇴원해서 집에 와 있는데 애 배꼽에서 피가 멎지 않아 이중화 선생께 말씀드렸더니 집에 직접 오셔서 치료해 주신 일화를 들려주셨다.

4) 참여자들의 약력은 『인천광역시사(2002)』 6권(문화유산과 인물) 및 『인천시립박물관70년사(2016)』 등을 참조했다.

김인환(金仁煥, 1937 ~ 2011)

1937년 함경남도 단천에서 태어났다. 1947년 인천에 정착하였으며 인천중 · 고등학교를 거쳐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했다. 그림을 배웠으나 미술평론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1966 ~ 1967년 신아일보사 기자로 활동했으며, 1974년 한국미술협회 평론분과 위원장, 1981 ~ 1989년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2009년 미술인의 날에 공로상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는 『원시미술』(동문선, 1990), 『동서 미술의 흐름(전 3권)』(미술공론사, 1994), 『미학 예술학 서설』(미술문화원, 1995), 『세잔느(편저)』(미술문화사, 2004) 등이 있다.

한상억(二綠 韓相億, 1915 ~ 1992)

호는 이록(二綠), 1915년 인천 강화에서 태어났으며 1935년 인천공립상업학교를 졸업했다. 1956년 『자유문학』에 시 〈평행선〉, 〈네거리에서〉 등이 추천되어 문단에 데뷔했다. 1958년 인천시문화상, 1963년 경기도문화상을 수상했다. 주간인천 주필, 『경기매일신문』 논설위원, 제2대 · 제10대~12대 한국예총 경기도지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가곡 〈그리운 금강산〉, 〈그리워라 두고 온 사람들〉의 작사가이기도 하다.

낭승만(西泉 浪承萬, 1933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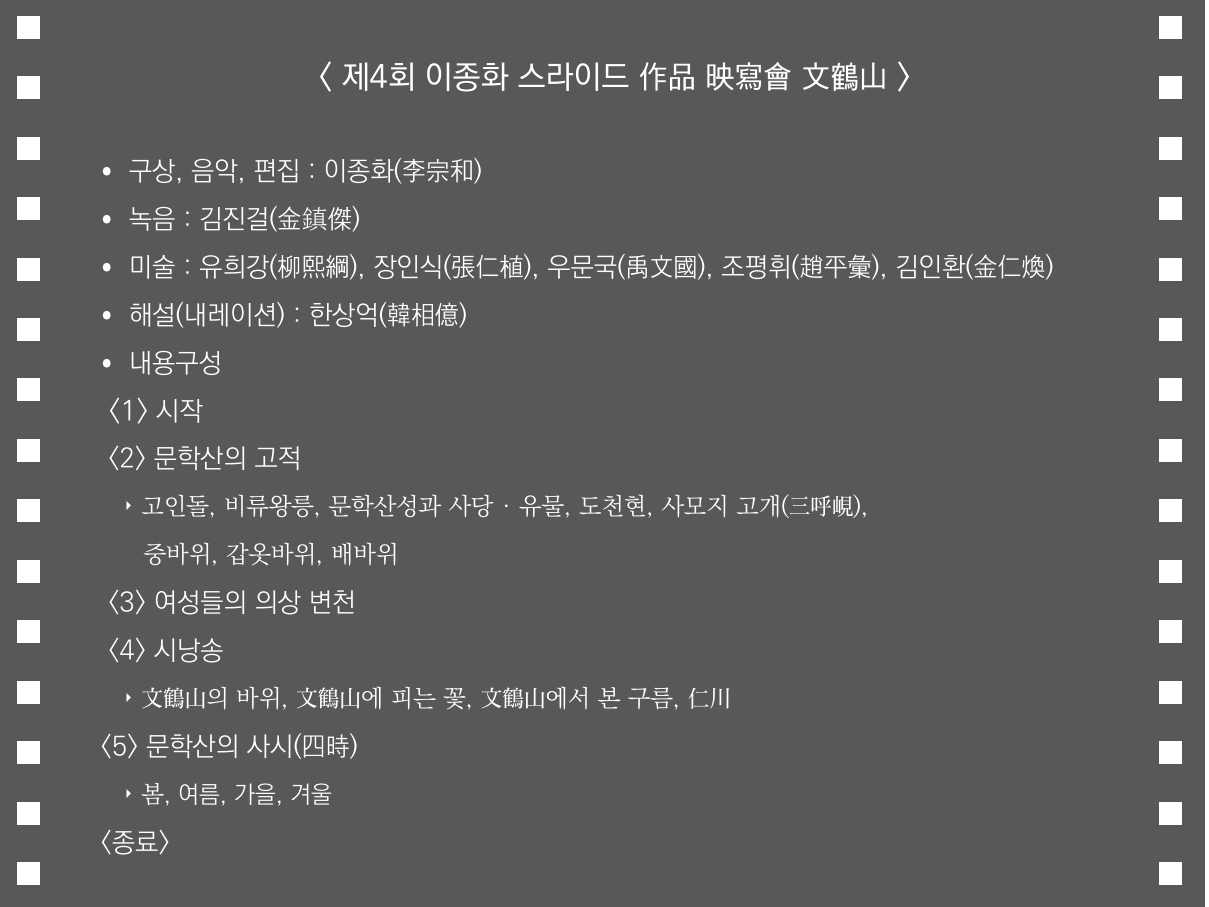
호는 서천(西泉), 193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57년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56년 『문학예술』에서 시 〈숲〉으로 1회 추천을 받은 이후, 1962년 『현대문학』에서 시 〈고지〉로 추천을 완료했다. 『사계의 노래』(1970), 『북녘 바람의 귀순』(1978), 『우수제』(1981), 『한·비가』(1981), 『어느 해 가을의 해일』(1986), 『안개꽃 연가』(1987), 『억새들의 땅』(1988) 등의 시집을 발간했다. 1978년 대한민국문학상, 1983년 인천시문화상, 1990년 도천문학상을 수상했다.

조한길(趙漢吉, 1934 ~ 1972)

1934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다니다 중퇴했다. 1961년 『자유문학』에 게재한 〈입상(立像)〉으로 신인문학상을 받았다. 인천문인협회 초대 사무국장, 부지부장, 감사 등을 역임했다. 시 창작 외에도 언론계에서 편집기자로 활동했으며, 1972년 경기일보 편집국장으로 재직 도중 사망했다. 대표적인 시로 〈입상〉, 〈철조망〉, 〈자화상〉 등이 있으며, 1967년 경기도문화상을 수상했다.

2-2. 지면으로 보는 작품 영사회 《문학산(文鶴山)》

제4회 이종화 슬라이드 영사회 슬라이드 필름 속 소제목은 ‘사모지 고개(三呼峴) → 文鶴山の 바위 → 文鶴山에 피는 꽃 → 文鶴山에서 본 구름 → 文鶴山の 四時(봄, 여름, 가을, 겨울) → 끝’ 이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이 총 6개 파트로 분리했고, 새로 제목을 단 부분은 2. 문학산의 고적, 3. 여성들의 의상 변천 역사, 4. 시낭송 항목이다. 2번 ‘문학산의 고적’은 내용에 맞게 고적명을 소제목으로 붙였으며, 4번 ‘시낭송’ 부분은 이종화, 한상억, 낭승만, 조한길 시인의 시를 들으며 사진을 감상하는 부분으로 ‘시낭송’으로 한 데 묶었다. 5번 ‘문학산의 사시(四時)’는 음악을 들으며 문학산의 사계절 풍경을 감상하는 부분이다. 사진과 함께 수록된 글은 한상억이 담당했던 영사회의 내레이션이다. 현재와 문법이 다르지만,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여 음성을 그대로 옮겼다.



〈1〉 시작



전인가도를 왕래하는 사람이면 부평 원통이 고개를 너머 수원서부터 주안에 이르는 사이에 그리 멀지 않은 남쪽의, 부드러운 능선이 기어올라가 호젓이 솟아있는 산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산이 바로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이다.



우리 선민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이 산 주변에서 살아왔고 꿈결을 누비며 오늘에 이르렀다. 5천년 유구한 역사를 겪어가면서 이 산은 묵묵한 가운데 무수한 변천을 겪어왔다. 이 산 주변의 역사는 인천의 역사요, 또한 한국의 역사의 일부분이다.



🔊 오늘의 문학산은 변하고 있다. 오늘의 문학산은 어제의 문학산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태로서의 문학산이 눈부시게 변천하는 역사의 흐름에 적응하고 있을 뿐 주체성으로서의 문학산은 변함이 없다. 그는 묵묵히 태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의 변천을 말하고 있으며 또 내일도 그러하리라.



🔊 이 산을 의지하고 바다를 향해 걸어온 인천은 원래가 기구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낙랑, 고구려, 백제, 신라 여러 나라의 영토로써 밀려오는 동안 여기에서 백성들은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으며 그 때마다 인천의 이름도 고구려 시대에는 미추홀, 신라 시대에는 소성, 고려시대에는 경원 또는 인주라고 했다가 이조 태종대에 와서 비로소 인천이라고 불렀고, 부사를 두었다. 무수한 변천을 겪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문학산은 해변에서 세 봉우리로 나누게 되니 주봉인 문학산의 수리봉과 길마산이 달려있다. 이제 우리는 문학산 안에서 또는 밖에서 자연과 인간이 생명의 흐름을 응시하고 거기서 파생하는 사연의 가지가지를 들어보려 한다.



🔊 문학산은 아득한 옛날에 바닷물에서 떠돌아왔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 소래에 있는 소리봉은 영문도 모르고 떠돌아왔다가 문학산이 먼저 와서 우뚝 서있는 걸 보고 크게 놀라서 소리를 치며 다시 소래로 물러갔다고 해서 소리봉이라고 사람들은 전하고 있다.



🔊 이 산에 들어서면 나무 하나 제대로 남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풍겨나오는 태고적 향수에 잠겨, 보고 또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여기서 사면을 내려다 보이는 아주 먼 고대의 소식을 듣는 것도 같고, 중세기 무사와 이야기하는 것도 같고, 아주 근세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한 환상속에 사로잡힌다.



〈2〉 문학산의 고적

▶ 고인돌

☞ 학익동에 남아있는 고인돌 즉, 돌멘이라고 하는 고분이라던가 최근 이 산 주변에서 발굴한 돌로 만든 칼, 돌로 만든 도끼, 또 돌로 만든 활촉 같은 것으로 보아 신석기시대의 우리 선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가 있다.



☞ 눈 아래 펼쳐지는 청학동, 연수동, 관교동, 학익동, 선학동, 그리고 마주 보이는 승학산들이 꿈결같은 모습인 양 또 그 이름이 ‘학(鶴)’자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학들이 문학산 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고 그 때문인지 지금도 이 주변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 비류왕릉

고구려 주몽왕의 두 왕자 비류가, 비류와 온조는 남하하여 비류는 바다로 나가 미추홀 즉, 인천에 도읍하고 온조는 남하하여 위례성 즉, 지금 광주에 도읍하였는데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아 백성이 모이지 않고 나라가 번성하지 않았다. 비류가 동생의 나라인 백제를 찾아가 보니 삼면이 수려하고 오곡이 풍성하여 국태민안(國泰民安)한지라 비류는 자기의 실패를 비관하고 미추홀에 돌아와서 자살을 하였다.



문학산 북록에 왕릉같은 산소 자리가 있어 사람들은 이것을 비류왕릉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름도 없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을 꺾어 공손히 왕릉 앞에 놓고 나직한 소리로 ‘비류왕-’하고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다.



수리봉 저편에 하염없는 구름이 흘러 거칠 것 없던 비류의 혼을 어루만져 주는 듯.

그러나 비류는 오늘의 대인천을 개척한 첫 선구자인 것이다. 저 숲 사이로 펼쳐 보이는 대인천을 보라. 저렇듯 힘차게 자라나고 있지 않은가.



▶ 문학산성과 사당 · 우물

🔊 문학산 상상봉에 아주 오래된 산성이 있었다. 신라때 소성(邵城)이라고 불렀으나 그 이전부터 이 성은 있었던 것 같다.



🔊 이조 선조왕 임진왜란 때 왜병이 침입한 것을 미리 알고 있던 김민선이라는 인천부사는 부녀자들을 피난시킨 다음 이곳 장정들을 모아 성벽을 수축하고 굳게 지켜 쳐들어오는 왜적을 대적하였다. 그들이 신병기 앞에서도 잘 싸워서 능히 10여일을 견디어 냈다.



🔊 오십 년 전까지도 거목이 울창한 성 안에 조그마한 김 부사의 사당이 있었다. 이 사당은 자연히 무너지고 주춧돌만 남아있다. 인천을 사수하던 김 부사의 전공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잘 수축해야 할 사당이었다.



🔊 이 사당 뒤에 신기하게도 두 개의 우물이 있어 싸우던 우리 병사들의 목을 축여주고 있었는데, 물맛이 짜서 이 우물은 월미도 뒷바다에 연해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 도천현(禱天峴)

🔊 학익동에서 문학 읍내로 들어가는 어귀에 도천현(禱天峴)이라는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크고 넓은 바위가 하나 있으니 이것은 하늘에 제사하는 제단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나라 산세가 강해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므로 명나라 사람은 이것을 시기하여 이 산 허리에 무쇠를 박아 산 정기를 끊어놓고 그 위에 바위를 눌러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고려 때에는 한 무리 왕후를 비롯하여 열 두분의 왕자를 낳은 이 문학 읍내에 그 후부터는 훌륭한 인물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 사모지 고개(三呼峴)

🔊 문학산 서편과 노적산 사이에 골짜기가 하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속칭 사모지 고개, 또는 삼호현이라는 것이다. 이 사모지 고개 멀리 부평 연산 사이에 건너다 보이는 또 하나의 고개, 속칭 별고개 또는 별리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다.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한양을 떠나 부평 들을 건너 문학 읍내를 거쳐 이 사모지 고개를 올라 별고개까지 전별나온 가족들에게 잘 있으라고 인사를 세 번 하였다고 해서 삼호현 즉, 세 번 부르는 고개라는 뜻이다.



그들은 이 고개를 넘어 송도를 거쳐 능호대에서 배를 타고 떠났던 것이니 그 여로가 지금과 달라 긴 세월의 험한 육로와 수로의 아슬아슬한 여로였기로 사모지 고개에서 세 번 소리쳐 불렀다기보다도 세 번 통곡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만치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려운 길이었다.



중바위

사모지 고개 바로 너머 왼편에 구멍이 뚫린 바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중바위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



▶ 옛날 어느 중이 고개를 넘다가 바위에 앉어 하도 목이 말라서 ‘아이고 술이나 한잔 먹었으면 좋겠네-’ 하였더니 바위 뒤에서 난데없이 남자가 나와서 공손히 중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중은 술보다도 남자 얼굴에 마음이 끌려 또 한 잔, 또 두 잔, 석 잔을 청하고 또 녀 잔을 청하였더니 녀 잔째부터는 아무리 남자를 불러도 남자는 나오지 않았다.



▶ 중은 안타까운 마음에 무릎을 바위 앞에 꿇고, 두 손으로 바위를 잡고 바위 밑을 내려다보며 얼마나 안타깝게 불렀는지 무릎 자국과 손자국이 바위에 새겨지어서 영원히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부끼는 녹색 꽃을 꺾어 바위 위에 ‘계집 여(女)’자를 써 줌으로써 안타까운 승려의 마음을 위로하여 본다.



▶ 갑옷바위



▶ 중바위 맞은편에 큰 꺾꽂이같은 바위가 있으니 이것은 옛날 어느 장수가 이 바위 밑에 갑옷 투구를 감추어 둔 곳이라고 한다. 누구든지 이 바위를 다치게만 하면 뇌성벽력이 일어난다고 한다.

